

농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금융이해력의 심층 분석

전 은 수*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조 원 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의 최근 패러다임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소비자 관점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금융이해력을 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농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으로 삶을 통제하고 주도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농인 8명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수화통역사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자립생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환경적 조건과 관계자간의 문제 발생에 따른 그 해결을 위한 노력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경제활동의 장벽과 직장생활의 고독감', '소통이 제한된 가족구성원', '농사회의 금융이해력 접근형태', '자립생활 문제해결 과정과 피해사례', '자립생활에 개입하는 수화통역서비스'의 5개 범주와 그에 따른 11개의 하위범주, 46개의 의미단위가 분석 도출되었다.

주제어 : 농인, 자립생활, 금융이해력, 심층 분석

* 제1저자(sign3927@hanmail.net)

** 교신저자(wicho@kyonggi.ac.kr)

I. 서 론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으로 과거에는 개별적 방법, 그 중에서도 의료적 방법이 존재하였다면, 최근에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접근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자립생활모델이다. 과거 접근법들이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에게 있다고 보던 것이라면 자립생활모델은 장애인 주변 환경과 재활과정에 있다고 본다. 또한 자립생활 모델에서는 문제의 해결방법도 전문가의 개입이 아니라 동료상담(peer counseling)이나 옹호(advocacy), 자조(self-help), 소비자주권, 사회적 장애의 제거 등으로 장애인 스스로의 주체적 결정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김정수, 2008: 10; 김선주, 2008: 18; 강지혜 외, 2006: 19).

이렇듯 장애인 복지에서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의존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통해 사회적 공헌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박은선, 2005). 그렇다고 해도 자립생활의 양태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심지어 농이나 맹같은 성인 감각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한 의료적 방법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으며, 그만큼 의료적 차원이 아닌 그들의 일상생활자립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이는 특히 학령기 농아와 같은 감각장애아동에게도 중요하다. 왜냐면 인공와우수술 등의 효과와 그 윤리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의무교육기 이후의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대비한 기술은 학령기에 충분히 습득해두는 것이 원만한 생애주기적 교육 측면에서도 적절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인(Deaf)에게 자립생활의 접근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이나 이동권과 같은 물리적 접근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농인은 그보다 청력손실과 언어체계의 차이로 자료와 정보 열람같은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이 자립생활에 큰 지장이 될 수 있다(김태완, 2009: 27). 게다가 농인의 자립생활은 장애특성상 정보접근과 언어체계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인하여 타 장애인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이 경우 언어체계의 차이란 건청인과 같은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화라는 시각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에 농인 고유의 문화인 소위 '농문화'가 개입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농인이 건청인과 수화로 의사소통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기에 농인에게 정보접근과 원활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중재자인 수화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된다. 농사회와 농문화를 이해하는 수화통역사의 역할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문제해결에 영향을 주어 농인의 자립

생활의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제약은 수화통역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수화통역은 통상 시간적 제약, 통역과정의 누락, 수화통역사의 문제해결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대인관계상의 문제점 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인의 특성상 의료적 관점이 아닌 자립생활적 관점에 의한 접근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의 농인 관련 학위논문을 분석한 연구(이한선, 옥정달, 김병하, 2004: 188; 옥정달, 2005: 43)를 살펴보면 언어능력, 아동발달 및 특성, 부모관련, 교사관련, 교수학습, 공학, 이론탐색, 통합교육 등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 교사들의 연구로는 언어, 발달특성, 학습, 진로, 교육과정, 공학, 통합교육 등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농인들에 대한 다양한 미시적 접근을 통한 농인 자체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들로, 농인의 자립생활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농인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Quotient)은 자립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자 삶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능력으로 예를 들어 예금, 대출, 주택계약, 신용카드, 투자, 자동차금융, 보험, 신용관리, 대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금전거래 등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다. 금융이해력은 실생활에서 금융과 관련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을 통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금융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금융감독원, 2005). 요컨대 이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식 및 기능을 제공하여 소비자로서 하여금 선택과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윤지애, 2005: 6; 전은수, 2009: 6).

이러한 농인들의 금융이해력에 관한 연구는 전은수(2009)에 의한 실태조사 외에는 전무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인의 실제적인 은행거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수화통역사의 배치 등 금융기관 이용을 통한 금융정보 취득과 다양한 경로의 금융정보의 제공이 금융지식을 높일 것을 제언하였다(전은수, 2009: 65-70). 그러나 이 연구 또한 농인들의 금융이해력에 관한 실태조사에 머물러 있어 농인들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실 농인들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연구는 다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생소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7차 교육과정 하에서 실시되는 일선 교육현장의 문제점으로 윤지애(2005: 28)는 체계적이지 않은 금융교육 내용을 지적했고, 고혜현(2006: 33)은 사회 과목에서 경제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흥미 없는 원론적인 내용 및 어려운 경제용어,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지적했다. 또한 최은진(2004: 93)은 학생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저축, 투자, 보험, 노후대비, 신용관리에 관한 기본 지식 및 정보를 접할 수 없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해력의 측정은 없으며, 학령기를 불문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측정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와 관련되는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와 같은 농인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농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금융이해력은 어떠한가?

농인의 금융이해력을 심층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는 유사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타 장애유형은 물론이거니와 비장애인 학생의 금융이해력 증대를 위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이해력의 증대는 피교육자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결되어야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농인)에 대한 교육 경험은 그러한 개별성 존중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문헌 고찰

1. 농인 자립생활의 기본적 조건

1) 재활모델에서 자립생활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

장애에 대한 개념모델로 영국에서 태동한 사회적 모델과 미국에서 발현된 자립생활모델을 비교할 때, 사회적 모델은 거시적인 이념적 수준에서 장애의 원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반면, 자립생활모델은 자조모임과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사회변화 양상을 요구하는 자립생활 실천의 미시적 관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강조한다(김진우, 2010: 39).

이러한 자립생활모델은 이전의 재활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갖는다. 종전의 재활모델의 경우 장애인의 문제가 개인에게 있으며, 변화되어야 할 개인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혹은 직업재활 상담가 같은 전문가의 통제로 지시나 조언에 따라야 한다. 반면에 자립생활모델은 탈시설화, 탈의료화, 정상화, 소비자주권 등을 포괄하고 지역사회 운동이나 권익옹호뿐 아니라 사회적 배제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매뉴얼과 전달체계까지를 포괄하고(이익섭 외, 2007: 52-53), 장애인을 제한하는 편견에서 제도적인 차별까지, 접근 불가능한 물리적 환경에서 교통체계까지, 분리교육에서 노동에서의 배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김동기, 2009: 10).

요컨대 자립생활모델은 타인의 보호와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통제하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자신에게 내재하는 잠재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스스로의 인생설계,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원과 더불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강지혜 외, 2006: 19; 이익섭 외, 2007: 56-59; 박영숙 외, 2008: 57; 김진우, 2010: 44).

2) 농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수화통역서비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이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AS) 일 것이다.

그러나 농인의 자립은 통상적인 장애인 자립생활과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농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적 지원 영역을 예로 들면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지원으로 취업을 위한 훈련과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수입의 측면에서 소득 보장을 위한 제반 노력이다. 둘째, 통역 서비스 및 영상전화기나 자막수신기의 보급 등으로 장애 특성으로 인한 지출의 측면에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셋째, 정보접근의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 이 중 두 번째 및 세 번째 영역이 농인 고유의 요지원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정보접근의 측면에서 농인 관련 교육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당연한 교육에 머물러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개별적 욕구에 부합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농아인협회 교육자료, 2009).

농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매개자로 수화통역사를 들 수 있다. 수화통역은 농인과 건청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 음성언어를 수화 언어나 몸짓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수화언어를 음성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을 수화통역(Solow, 1981)이라고 하고, 수화통역을 수행하는 사람을 수화통역사라고 한다. 현재 수화통역은 전화통역, 의료통역, 종교통역, 방송통역, 직업통역, 교육통역, 법률통역, 문화 및 행사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화통역사는 학교, 의료현장, 경찰서, 병원 등 영역을 불문하고 폭넓게 통역의뢰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수화통역사는 수화를 음성으로, 음성을 수화로 구화와 수화에 능숙한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강주해, 1998), 읽기통역(한국수화 → 우리말)과 듣기 통역(우리말 → 한국수화)은 양자간의 충분한 이해 후에 표현하여야 한다(김칠관, 2000). 게다가 수화통역을 잘 한다는 것은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에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수화 형식체제를 생성해서 수행하는 것(강창욱, 1997)이라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 농인은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잘 된 통역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2. 농인 자립생활에 있어 금융이해력의 의의

인간 생활의 근본적인 철학이라 함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자기결정, 선택의 자유, 동등한 접근성, 사회에의 의미 있는 참여를 의미한다(우주형, 2006: 263). 이는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건강과 함께 장애인 복지의 2대 목표로까지 여겨져 왔다.

농인의 경우에도 그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필요성과 직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접근과 대안 제시는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농인의 직장이나 소득 활동을 위해 어떠한 특성을 갖으며, 직장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며, 얻은 소득을 건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를 필요케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실천과 연구가 활발한 일본에서도 농인은커녕 장애인의 금융이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名川(2008)에 따르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본 장애인의 일상활동 또한 경찰, 사법 분야, 구급, 방재분야, 교통, 기관, 의료분야, 소매업종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 그 중 소비자 금융에 관한 문제해결, 구제와 지원이나 필요성이 전국 소비자생활센터 등을 중심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적장애인에 한정된 연구로 신체적 장애인의 사례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에 앞서 佐藤 등(2005)은, 전국의 장애인생활시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로서의 장애인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응답한 전국 130개 사업소(송부수 178개소) 중, 91개 사업소(70%)에 소비자 피해·문제를 지원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그 문제에는 타인으로부터의 피해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으로 문제에 휘말리는 등 최종적으로 다중책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 상황은 비교적 경증의 장애인에 발생하며, 아울러 한 명이 몇 번의 문제를 경험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었다(名川, 2008: 4 재인용).

일본에서 이러한 장애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농인의 금융피해 사례가 적지 않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최근에는 빈곤층 대책의 일환으로서 금융지원체도가 도입되는 등의 개선책이 도모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마련하여 본인의 저축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로서 참가자들은 책임감, 자기존중, 신뢰, 더 나은 미래를 보게 됨, 안전감, 통제(자기효능감), 자산 취득, 시민으로서의 의무 등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권지성, 2010: 197-199), 이는 자립생활과 금융이해력의 증대로 얻게 되는 최종의 목표와 지향하는 바가 일맥상통한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농인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수급자격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수화통역서비스 등의 제약으로, 서비스에 전혀 신뢰를 보내지 않기도 한다. 농인의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듯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농인 고유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병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농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금융이해력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념을 맥락의 복잡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취급하는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조용환, 2009: 20)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연구는 풍부한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 참여자들을 포함하는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 나 ‘하나의 사례’ 또는 ‘여러 사례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경계지어진 체계는 시간, 장소에 의한 제한이며, 연구되는 것은 프로그램, 사건, 활동, 개인이다. 또한 연구자의 쟁점, 목적, 방법을 설명하여 독자들이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저자의 배경, 사례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례에 대한 기술과 주제, 주장, 연구자의 해석, 현실주의적인 대본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Creswell, 1998: 225-6). 이렇듯 질적 사례연구의 특징은 맥락과 쟁점을 가진 체계이며, 다양한 자료 수집,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 등으로 볼 때, 이 연구의 주제에는 질적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자료의 다원화(triangulation)를 도모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비롯하여 농인 협회의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2. 연구 절차

1) 농인 연구 참여자 선정¹⁾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고졸에서 대학원졸 사이의 25세에서 41세 사이의 성인 남·여 농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과 금전문제와 관련한 사항의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8명으로 구성되었다(<표 1>참조).

<표 1> 농인 연구 참여자 정보

연번	연구 참여자	연령	결혼	성별	거주지	학력	직업
1	A	28	무	여	서울	초대졸	판매원
2	B	29	무	남	서울	고졸	소방관련
3	C	41	유	남	경기	대졸	건축업
4	D	39	무	여	서울	대졸	방문교육
5	E	37	무	남	서울	고졸	청음작업장
6	F	29	무	남	서울	대재	대학생
7	G	26	무	여	서울	대졸	협회직원
8	H	28	무	여	서울	대학원졸	시험준비 중

총 조사는 1차 및 2차에 걸친 심층인터뷰로 실시하였다. 1차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 8명 모두를 대상으로 2010년 3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차 인터뷰는 추가 자료가 요구되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0년 6월 20일에서 10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09)에 따르면 장애인 구인·구직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으로는 고졸·초대졸·대졸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률과 알선·취업의 연령으로는 25~29세, 30~34세, 20~24세, 35~39세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구 목적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고려하였으며, 자립생활영역별로 연구 참여자의 성별, 결혼여부, 재직, 구직 등을 고루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2) 수화통역사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주된 연구 참여자로 농인 외에 수화통역사도 포함하였다. 수화통역사는 농사회에 빠질 수 없는 일원으로, 농인에게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농문화를 이해하며 생활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해결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참여자로서 수화통역사에 대한 심층인터뷰 또한 농인의 금융이해력 이해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화통역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 중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소속 수화통역사를 대상으로 법원통역과 금융통역빈도가 높은 지역의 근무자와 농아인협회, 농아인복지관, 농아인지부에서 책임자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선임 수화통역사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을 고려하여 모두 연구 동의를 받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표 2>와 같다.

<표 2> 수화통역사 연구 참여자 정보

연번	연구 참여자	성별	수화통역 경력	비고
1	A	여	6년	법원, 자산공사 등 금융통역의 빈도가 높은 곳에서 근무
2	B	남	20년	협회, 복지관, 지부 책임자 근무경력
3	C	여	6년	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통역의 빈도가 높은 곳에서 근무

수화통역사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는 1차에서 3차까지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1차는 연구 참여자 3명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추가 자료가 요구되는 연구 참여자에 한해 2차에 걸쳐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기간은 2010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였다.

3. 자료의 수집 및 처리

1) 자료의 수집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농아인협회 중앙회장을 방문

하여 연구 계획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농아인협회의 자립생활과 금융이해력과 관련한 협회의 지원 상황을 설명 받고 연구와 관련한 협조와 교육내역 확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문헌검토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나이, 학력, 교육경험, 직업경력 정도 등 기본적인 사항과 자립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인 자립의 어려움,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접근 신뢰기관, 다른 농인의 자립에 대한 인식, 당면 과제 등 반구조화된 질문 항목을 구성하였다(<표 3> 참조).

<표 3> 반구조화된 질문 항목

자립 생활과 금융 이해력	수입	직업	최근 근황, 하루일과, 근무환경, 만족요인
		경험	학교졸업 후 소득활동과 경험, 변화과정
		인식	자립에 대한 인식, 욕구, 방해요인, 목표 및 계획
		교육	자립을 위한 고용훈련 경험, 학력, 직업경력
	지출	주거	주거현황(부모 동거 유·무, 가족구성형태)
		의료	장애로 인한 지출 내용, 수화통역비, 보청기 등
		인식	지출에 대한 관리 및 인식
		관리	지출내역, 저축여부, 관리형태
	정보	교육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의견
		재정관리	재정관리 교육인식, 경험, 정보 습득과정에 대한 의견
		서비스	정보 및 교육 서비스 경험 유·무, 제공회망 서비스
		사회 안전망	복지관, 청음회관,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의 이용 경험
		인식	욕구 및 개선의견

한편 수화통역사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화통역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 최근 가장 많은 수화통역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농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정보, 교육 등)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 농인의 생활에서 어떤 방해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농통역사와 건청인 수화통역사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농인의 금융이해력 부족으로 어려움(사례)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금융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하게 되나요?

개별 심층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 8명을 각기 만나 먼저 개방형 질문으로 농인의 생활, 인식, 직장, 교육생활에 대하여 최대한 자유스럽게 답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개별 인터뷰의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자연스러운 인터뷰를 위해 미리 만나 연구 참여자와 친밀한 관계(rapport)형성을 위해 연구자가 수화로 연구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확인하였다.

인터뷰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1회 인터뷰는 최소 15분에서 최대 28분이었고, 추가 인터뷰형식으로 2차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28분에서 최대 38분 동안 실시하였으며, 모든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얻어 SANYO-VPC-CA9로 동시 동영상 녹음하였다. 수화통역사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1회 최소 1시간 8분에서 최대 1시간 35분이었으며, 음성녹음을 위해 A7-AMI(mp3)로 녹음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자료는 인터뷰를 마친 즉시 녹음된 파일을 활용하여 전사하였다. 연구자는 동영상으로 녹음된 수화영상을 직접 번역하고, 음성파일도 들으며 기록하였다. 전사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2)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주된 의사소통 수단이 수화이므로 연구 수행을 위하여 수화사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자는 비상근 수화통역사로 근무한 경험과 관련 통역대학원 졸업,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그리고 수화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와 수화로 질문을 하고 농인이 수화로 답한 내용을 연구자가 동영상 촬영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동영상 인터뷰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수화표현을 단어, 문장, 표정, 수화사용방식, 입모양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번역하여 전사하였으며, 이렇게 전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 이에 따른 전사축어록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인터뷰 동영상의 경우에 3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사례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사례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두 가지 전략적 방식이 있다. 하나는 개별적인 경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것(direct interpret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어떤 하나의 종류라고 얘기될 수 있을 때까지 경우들을 모으는 범주 합산(categorical aggregation)이며, 사례연구는 이 두 방식에 의존한다(Stake, 1995; 권지성, 2010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과정에서 동영상 녹음한 자료를 전사본의 형태로 모두 기술한 뒤 줄단위 분석으로 개방코딩을 하면서 개념을 찾고, 이 개념들을 중심으로 다시 범주 합산을 한 후에 그 범주에 대해 해석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도출된 연구 결과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상호 검토하면서 대학원의 지도교수와 논의하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분석 결과, 11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 기술 중 의미 있는 진술은 305개였다. 이 때 의미가 중복되는 진술을 제외한 범주화된 의미 있는 진술들에 대해 재 진술 과정을 반복하여 구성된 의미가 추출되었다. 연구 결과, ‘경제활동의 장벽과 직장생활의 고독감’, ‘소통이 제한된 가족구성원’, ‘농사회의 금융이해력 접근형태’, ‘자립생활 문제해결 과정과 피해사례’, ‘자립생활에 개입하는 수화통역서비스’의 5개 범주와 그에 다른 11개의 하위범주, 46개의 의미단위가 <표 4>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4> 도출된 영역·범주 및 의미단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경제활동의 장벽과 직장생활의 고독감 A	접근하기 어려운 취업 ①	취업연계 곤란한 직업교육
		전달받지 못한 교육 정보
		원활하지 못한 면접 통역
		불명확한 일자리 정보와 막연한 기다림
	부당한 처우와 동료에 없는 직장생활 ②	찾은 야근과 임금 체불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
		대화 없는 직장생활의 고독감
		무시하는 듯한 느낌
소통이 제한된 가족구성원 B	이해하기 힘든 의사소통 형태 ③	강제로 주입된 말과 발음
		소리 없는 입모양 대화
		음성 분별 어려운 보청기
	지지 받기 어려운 가족 구성원 ④	외로운 고뇌의 생활
		혼자만 농인이라 참을 뿐
		의사소통 오해로 인한 분노
		가족의 시간에 맞춰 미뤄진 공금증

<표 4> 도출된 영역·범주 및 의미단위 (계속)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자립생활 문제해결 과정과 피해사례 D	문제해결 수단의 다각화 ⑧	늘어난 영상전화기 서비스 이용
		문자나 전화통역으로 부족하면 수화통역사 투입
		내방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통역의뢰
		궁금증을 지원하는 통신중계서비스 활용
		중요한 금융문제를 제외하고 필담으로 부탁해 처리
	금융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 사례 ⑨	쉽게 돈 번다던 금융 다단계 피해
		금융지식 결여가 불러온 피해
		잘못된 핸드폰 계약으로 빚더미
		경계심 없이 빌려주는 신용카드
자립생활에 개입하는 수화통역서비스 E	개입된 수화통역사의 입장 ⑩	피해사례에 개입하는 수화통역사
		빈번한 채권채무 관계로 시작되는 통역
		문제해결을 잘하는 눈치 빠른 수화통역사 필요
		결과에 성패달린 수화통역
		문제대처 늦은 농인
	통역상의 문제해결 제한사유 ⑪	문제해결되기까지 말하는 긴 수화 통역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
		수화통역사의 윤리적 갈등
		방관자적 교육지원

상기와 같이 도출된 하위범주는 아래에서와 같이 대표적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경제활동의 장벽과 직장생활의 고독감

1) 접근하기 어려운 취업

농인은 취업을 위해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수화통역사도 단편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업을 알선 하지만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한다. 이렇듯 취업 정보 제공 창구도 부재한 상황에서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직업교육은 농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훈련과 변화하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제공의 주체에 따라 진행되는 비효과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직업재활교육과 훈련이 파편적인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학교 교육에서부터 졸업 후 고용훈련까지 구직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적절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영실, 2006: 121).

장애이고용촉진공단에서 취업관련 훈련을 14일간 받고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한적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정부에서 도와주는 교육 받아봤는데 회사 입사를 위해서는 조금 민기 힘들어요, 옛날에 청음회관에서 일자리 소개해 준다고 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결국 아무 것도 없었어요, 컴퓨터 학원 다니면 취업시켜준다고 했는데 없어요, 똑 같아요,

(연구 참여자 A)

농아인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늦고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건청인과 똑 같이 정보를 제공받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농아인을 위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때문에 농아인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정말 캄캄한 것 같아요, 빨리 정보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만들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D)

협회는 정보를 문자만 주고 통역은 해주지 않아요, 일자리 정보 문자 준다고 했는데... 몇 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연구 참여자 F)

2) 부당한 처우와 동료애 없는 직장생활

농인은 어렵게 취직한 직장에서 부당한 처우와 동료애 없는 소외감으로 인해 이른 이직을 결심한다. 농인의 이직 사유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우선순위 1은 '임금문제 >

승진 등의 희망이 없음 > 근무조건 열악' 과 우선순위 2는 '의사소통문제 > 동료 및 상사의 장애인에 대한 무시' 의 순이었다(이상욱, 송미연, 2002: 221). 이같은 결과는 비단 농인의 취업 알선뿐만 아니라 직업생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월급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장애인을 처음 뽑아서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처우가 서툴렀어요...중략... 그러다가 사라졌죠, 저는 월급 받지 못하고 매일 야근하고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고... (연구 참여자 A)

나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조금 올랐는데,, 건청인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차별 너무 심했어요, (연구 참여자 D)

점심밥 먹을 때 대화 많이 없고 혼자 밥을 먹고,, 다른 사람들 점심 먹으면서 대화하면 구경만 하고...건청인들은 마음대로 대화하면서 밥 먹을 때 나는 그냥 구경만하고 쉬고... 혼자만 그냥 놓고 있었죠, (연구 참여자 D)

회사에서 동료들을 보면 대부분 건청인이고 농아인은 3명뿐이니 일 시작 할 때 건청인들은 얘기하고 하는데 농아인은 가만히 외롭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나르는 일로 손을 사용하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손동작으로 밥,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대화했죠, 아니면 간단한 필담정도... (연구 참여자 E)

2. 소통이 제한된 가족구성원

1) 이해하기 힘든 의사소통 형태

농인은 어린 시절부터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정보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으며, 교육의무기를 지나 성인시기까지 가족 구성원과 자신들의 언어인 수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문화 언어인 음성언어 위주의 습득을 요구받는다. 농인의 경우 간단한 단어를 이용한 필담은 가능하지만 적절한 문법의 적용과 긴 문장은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가족구성원이 수화, 구화, 필담, 몸언어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을 병행하고 있으나 수화구사력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관계형성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직장, 채무관련, 법률, 물품 구입과정의 의사결정과 갈등 증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혜숙, 이미혜, 2005: 75). 이는 가족구성원의 수화구사력의 중요성과 인식이 농인 자립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1,2,3학년 다닐 때는 말, 발음을 강제로 주입식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전혀 몰랐죠, 친구와 대화하고 선배들하고 대화 하는 것 보면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서 수화 잘하게 되었고, 부모님하고는 필담으로 대화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고,, 말은 쉽게 단어만,,밥, 청소, 빨래,,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연구 참여자 E)

가족 중에 언니와 제일 의사소통이 잘돼요, 수화는 아니지만 내가 말소리 없이 말해도 입 모양 보고 다 알아요, (연구 참여자 A)

입 모양과 보청기소리 두 개 합쳐서 하고 있어요, 말소리가 조금 들리기는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입모양 같이 봐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단어의 뜻을 더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2) 지지 받기 어려운 가족 구성원

가족의 주요 기능에는 생물학적 종족의 유지나 애정적 욕구충족의 기능뿐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상호의존과 사회문화적으로 도덕과 관습에 적응하는 일도 포함된다(박용순, 2009: 323). 그런데 농인은 사회활동 속에서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을 가족 내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당면한 문제의 대처방법을 학습 받지 못하며, 궁금증의 해결 없이 어린 시절부터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 대처가 부적절할 수 있다. 특히 가족구성원 중에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성장기에 가정에서 제공받아야 할 가정교육은 이뤄지기 어렵다.

옛날에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해서 많이 화났어요, 부모님은 수화 못하시고 입모양으로 대화하고, 핸드폰 문자로 대화하고, 입모양은 빠르지 않고 크고 천천히 하고, 혹시 모르면 글자로 써서 대화하고,,,, (연구 참여자 C)

다른 곳에서 교육받으려면 수화통역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부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교육받아도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 언니 아니면 남동생에게 물어보고,,부모님이 금융에 대해서는 말씀하지는 않아요, (연구 참여자 H)

3. 농사회의 금융이해력 접근 형태

1) 제공받고 싶은 정보접근 매체

농인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을 원하고 있으나 청력손실과 언어체계의 차이로 자료와 정보 열람과 같은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다(김태완, 2009: 27). 반면, 농인의 언어체계인 수화를 통한 정보의 습득을 선호하지만 농사회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인터넷을 통한 자막서비스도 이해하기에는 부담감이 있다.

서로 만나 얘기하고 놀다보면 서로 물어보고 이야기 하는 건 좋은데,,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예요, 내가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청인처럼 지식정보를 습득하는 것이죠, 수화로 서로 이야기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거요, (연구 참여자 E)

2년 전에 금융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에 농아인을 위한 자막 있다고 해서 봤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지루했어요, 왜냐면 대부분 자막이 있는데 수화와 맞지 않아요, 이해 안되고 오히려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1:1로 만나서 교육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H)

2) 지원받고 싶은 미래를 위한 교육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잠재능력의 가능성을 개발하여 사회생활에 스스로 적응해 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을 특수교육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수교육의 기본은 독특한 교육적 요구(unique educational needs)에 최적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한다(정무성 외, 2006: 27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학교 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의 증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성인기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된다. 이에 생애주기별 교육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농인 자신도 이러한 교육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스스로 대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과 관련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단계,,정치,,경제,, 또 경제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 좋겠고,, 사회인으로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왜 생겼는지 알고 그런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참여자 H)

돈 관리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축이나 지출 투자 같은 것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잘 못 투자하는 것이 많고, 빚이 늘어나고, 신용카드만 있으면 안심이라고 오해하고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 D)

3) 공유하지 않는 금융지식

농사회는 강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가지고 서로에게 지지가 되기도 하지만 좁은 농사회에서 채권채무관계도 빈번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금전문제 만큼은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인 사이의 빈번한 채권채무 관계에서 근거서류(차용증 등)도 없이 거래되거나 서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좁은 농사회 특성상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 부족하다, 부족하다고만 하지 부족한 것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는 없어요, (연구 참여자 G)

내가 돈 있는 걸 남한테 알려줘 가지고 내가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서 안 빌려 줄 수도 없고.. 실제로 돈을 공개하면 빌려달라고 다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수화통역사 C)

금전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돈 이야기는 부모님과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중략... 지출이 어느 정도 된다 아니면 더치페이 같은 행동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H)

농사회는 악용하는 친분관계, 잘못된 정보, 사생활노출에 대한 거부감, 배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금융이해력을 증대시키는데 제약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금융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기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전은수(2009)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농인의 자산 관리에 관한 정보취득 경로로 학교, 부모, TV 또는 신문, 인터넷, 친구, 금융기관, 협회, 기타의 8가지 항목 중 인터넷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4. 자립생활 문제해결 과정과 피해사례

1) 문제해결 수단의 다각화

농인은 스스로가 정보 취득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편의에 맞게 다양한 수화통역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자신의 인식과 의지로 매체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에 관련한 문제만큼은 수화통역사의 개입을 희망한다.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중함을 내포하고 있어 중복적으로 수화통역사의 개입을 희망하는 것이다.

영상전화기만 사용하고... 수화통역사는 잘 부르지는 않아요, 대부분 영상전화기만 사용하지요,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부르지 않아요, 회사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영상전화기를 통해서 전달하면 되고 상세한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요, (연구 참여자 C)

혹시 궁금한 것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통신중계서비스' 를 이용해서 문자로 전달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가끔씩 도움 받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D)

예를 들어 중요한 것 중에 카드가 정지가 됐다든지 하면 수화통역사를 부르죠, 그 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써서 필담으로 처리하면 되고,, 부모님은 늙으셨기 때문에 함께 다니시기가 힘들어서,, 필요하면 이웃집 아줌마에게 부탁하면 여기저기 전화해 주고 도움 줍니다, 혹시 집에 고지서나 다른 안내장 같은 것이 와서 문제가 생기면 영상전화기로 문의해서 처리하고,,, (연구 참여자 C)

2) 금융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사례

자립생활의 기본철학으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정무성 외, 2006: 327).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전반을 사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농인들에게는 거의 전무하다. 그 결과 합리적인 선택과 의사결정 능력인 금융이해력의 결여로 농인의 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농사회에서 회자되는 정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위험에 노출되어 피해가 확산되기도 한다.

다단계 피해가 많아요, 대부분 농아인 공장에서 일해도 120만원 정도인데 건청인들이 쉽게 다단계로 돈 벌 수 있다하니까 서로 소개하고 추천만아서 물건 광고 잘하면 몇 억씩 벌 수 있다고 해서 많이 참여했고 결국 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어요, (연구 참여자 E)

핸드폰 다단계 피해도 많아요, 내 가까운 선배는 스마트폰 무료나 다름없다고 21만원에 사게 됐는데 나중에 단말기 값으로 70만원을 내라고 해서,, 결국, 사기에 속았어요, 그런 식으로 농아인들이 사기에 빚이 천만원 이상 된 사람들이 많아요, (연구 참여자 E)

카드들 통째로 많이 쥐버리고 그 사람이 갚아주지 않으면 신용도 떨어지고, 자기가 돈을 필요로 할 때는 다른 친구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연출시키는 그런 게 많이 있죠,

(수화통역사 B)

5. 자립생활에 개입하는 수화통역서비스

1) 개입된 수화통역사의 입장

농인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모두 수화통역사에게 통역을 의뢰할 때는 성공적인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 문제의 성공적인 결과가 수화통역서비스의 질로 평가되기도 한다. 농인이 수화통역사를 찾는 경우는 스스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최종 단계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 상황에 수화통역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이렇듯 수화통역서비스는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으로 사회·경제·교육적 기회 등에서 평등과 존중을 받도록 지원한다(박용순, 2009: 305).

농사회 안에서도 조금 기본적인 법률 지식, 기본적인 금융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르는 농인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용들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수화통역사 B)

농아인들이 조금 관계가 많이 되는 게 아무래도 채권채무관계죠, 그런 관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너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수화통역사 A)

수화통역사의 통역시에 그냥 그대로 전달하지 말고 좀 더 판단 잘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좋은데 거부하면 농아인 입장에서 낙심하기 때문에 화내는 농아인이 많아요, 나 뿐 아니라 부인도 화나는 때가 많아요, 판단 없이 그냥 전달만 할 것이 아니라 눈치껏 잘하면 좋겠어요, 눈치 없이 그냥 전달만 하면 부르지 않아요, (연구 참여자 C)

농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안된다" 라는 말을 너무도 싫어해요 본인이 원했는데 이거 안된대요, 그러면 수화통역사의 노력이 부족하고 성의가 없고 내가 해주기 싫어서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법이 안된다고 말하는 거고 규정이 안된대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든 우겨서 그 결과물을 이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서 또 트집 잡을게 없으면 재 수화 못해 내가 수화를 못해서 그런 거라는 정말 저희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수화통역사 C)

농아인들은 수입이 너무 적어요, 대출도 하기 힘들고 무슨 사기나 손해를 입으면 농아인들은 하루, 이틀, 사흘 그냥 시간만 보내지만 건청인은 손해 본 즉시 여기 저기 전화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꺼예요, 농아는 달라요 대처가 늦어요, 처음에 괜찮겠지 하다가 시간이 흘러 버리고 증거도 없어져요, (연구 참여자 E)

2) 통역상의 문제해결 제한사유

이전과 비교하면 수화통역 매체가 늘어났으며, 수화통역의뢰 내용도 변하고 있지만 수화통역사에게 동행통역의 의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수화통역사의 입장에서 정확한 의사소통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더불어 문제해결, 즉 늘 좋은 결과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한다. 더불어 장시간의 수화통역과 전문성 및 수화통역사의 대인관계 능력 등도 수화통역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얼마 전에 가셨던 분은 농아인 인데 안과에 문제가 생겨서...중략... 안약을 넣고 20분 기다리고 30분기다리고 1시간 기다리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함께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벌써 하루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은 계속 문자를 해요, 오늘 만날 수 있을까? 몇 시 어디로 와, 이러는데 전혀 해드릴 수 없어요, (수화통역사 A)

통역의 어려움은요 일단은 전문용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렵고...중략... 특히 법률용어도 그렇고 금융언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 그거를 농아인들 입장에서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줘야 하고요, (수화통역사 A)

또 어떨 경우에는 농아인 들은 그냥 지켜보는 상황이고 제가 활동을 다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바른 것인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수화통역사 A)

V. 연구의 함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실천적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적 함의

첫째,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규정하여 직업을 통한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존권과 더불어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도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인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애유형과 사회적 환경이 반영된 적절한 취업연계 교육과 상시적 정보제공을 위한 매뉴얼조차 없어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A-① 관련).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실태에 따르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2.74%와 34.67%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49). 이는 안면장애 65.48%와 지체장애 50.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에서도 청각장애 39.78%와 언어장애 30.42%로 나타나 장애유형별 취업자 비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서 드러나는 비율 이면에는 고독하고 동료에 없는 직장생활의 어려움(A-② 관련)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과 취업 후 직장생활을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농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체계가 의사소통문제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화 없는 의사소통(B-③ 관련)으로 필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농인과 금융이해력의 증대를 희망하는 농인을 위해 다양하고 상시적인 교육은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한국은행 금융교육의 접근편의성을 확대하고, 금융감독원의 금융이해력 측정 대상에 농인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서비스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인의 장애인식에 대한 편견 즉, 자막만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과 농인의 금융이해력 측정 도구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이해하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농인의 언어인 수화로 교육하고 측정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의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농사회와 농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 때 순기능적인 측면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적 장벽(C-⑤ 관련)을 극복하도록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원받고 싶은 미래(C-⑥ 관련)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바람직한 금융 지식 공유(C-⑦ 관련)를 위해 장애 당사자인 농인을 증원하여 수화통역센터 내에서 자립생활을 위해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고, 농수화통역사의 역할도 강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이해력의 부족으로 피해를 보거나(D-⑨ 관련), 의존적인 농인 뿐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농인의 경우에도 금융 관련한 문제를 당면하게 되면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보를 중복적으로 수집하고 비교 판단(D-⑧)하려고 한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본에서 실시한 장애인 소비자 피해사례 관리처럼 개인 피해사례 및 집단 피해사례(D-⑨)에 대한 다각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집약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인 관련 기관들은 이와 같은 사례관리로 피해사례를 막는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섯째, 수화통역사의 역할은 직업윤리적으로 중립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화통역 현장에서는 농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문제해결중심의 역할(E-⑩ 관련)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문제 해결의 성패에 따라 수화통역의 수준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또한 농인의 미해결과제는 수화통역을 통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수화통역 업무를 과중하게 하고, 그 결과는 문제해결의 제한사유(E-⑪ 관련)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화통역 서비스의 제공을 중립적 수화통역사의 영역과 문제를 사정하고 해결중심의 접근이 가능한 사회복지적 역할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인복지관의 수는 매우 적고 자립센터는 자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화통역센터의 역할을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윤리적 갈등과 방관자적 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조직의 구성 세분화가 필요하다.

2. 실천적 함의 및 제언

첫째, 농인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통제하며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인 스스로 자기결정권(D-⑧ 관련)을 행사하도록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지원받고 싶은 교육(D-⑥)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생활을 위해 안정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더불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지원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강영실, 2006: 105).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기술적인 지원과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A-② 관련) 농인을 위해 고용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하도록 옹호하고 증재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인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합리적인 선택과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금융 이해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농인의 문화(C-⑤ 관련)를 인정하고 농인의 언어인 수화를 함께 사용하도록 실천적 노력과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김언경 (2010: 26)은 수화통역사가 농인을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하며 문제해결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촉진자 (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나, 현장 수화통역사들의 역할에 대한 갈등은 남아 있다. 이에 농인의 금융이해력 증대를 위한 통역과 상담서비스가 이분화되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농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금융이해력의 보다 효과적인 신장을 위해 수화역사의 금융이해력 강화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농인의 금융이해력 신장을 목표로 수화통역과 상담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실 (2006).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재활지원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과학논총**, 16(2), 105-134.
- 장지혜, 윤영삼, 김상운, 성기창, 박광제, 강병근 (2006).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실태분석을 통한 한국형 장애인 자립센터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12(2), 17-29.
- 고혜현 (2006). **중학교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이 경제현상이해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지성 (2010).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연구: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시범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3, 193-218.
- 금융감독원 (2005). **정례브리핑자료: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교육팀**. 2005.10.25일자, 1-36.
- 김동기 (2007).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자립센터의 조직효과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언경 (2010). **수화통역사의 농문화 인식이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 김선주 (2008). **농아인의 정보접근이 자립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정수 (2008). **자립생활지원모형을 활용한 지적 장애인 그룹홈에 관한 연구: 부천시 사례연구 및 한국형 모형의 탐색**.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김진우 (2010).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과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이론적 비교연구. **사회복지학**, 1, 39-63.

- 김태완 (2009). **청각장애이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박영숙, 방귀희, 손영숙 (2008). **장애인복지의 이해**. 동인.
- 박용순 (2009).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 박은선 (2005).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옥정달 (2005). 국내 청각장애관련 학위논문 현황분석: '90년대 이후 교육대학원과 특수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3), 37-55.
- 윤지애 (2005). **금융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우주형 (200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법제도화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261-281.
- 이상욱, 송미연 (2002). 수화통역서비스가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12(2), 213-242.
- 이익섭, 최정아, 이동영 (2007). 장애인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14, 49-81.
- 이한선, 옥정달, 김병하 (2004). 청각장애교육 관련 국내 연구 현황분석: '90년대 이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181-202.
- 이혜숙, 이미혜 (2005). 농아인가족 의사소통 특성과 자녀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13(1), 57-78.
- 전은수 (2009). **농아인의 금융지식과 재정관리 실태조사**.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 정무성, 양희택, 노승현 (2006).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 조용환 (200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최은진 (2004).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내용의 구성과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9).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장애인 고용정보시스템 정보분석**.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청음회관 www.chungeum.or.kr
- 한국농아인협회 www.deafkorea.com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 名川勝. (2008). **知的障害者の地域生活における消費活動・金銭管理とその支援に関する研究**. 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研究成果報告書.
- John, W. Creswell.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In-depth understanding of financial literacy for
independent living of the Deaf

Jeon, Eun Soo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Cho, Won Il

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with deep interview about the financial literacy through the case study for independent living of the Deaf as the disabled of independent living is switched to the center of consumer viewpoint to respec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erms of the Deaf, in order to observe they control life with reasonable choice and decision-making to exert the leading rights to decide, I chose eight Deaf participants and three sign language interpreters with abundant field experience. As a result, five categories, namely, barrier of economic activity, feeling of loneliness for career, family members with limited communication, access form for financial literacy of Deaf society, the solution process for independent living problems and damage cas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 for problems of independent living, eleven sub categories, forty six sense units were drawn. I tried to comprehend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 due to the problem happening among those concerned by observing independent living process of the study participants.

Key Words

: The Deaf, IL(Independent Living), Financial literacy, In-depth analysis

논문 접수: 2011. 01. 29 심사 시작: 2011. 02. 09 게재 확정: 2011. 03. 16